제291호 天主敎 全州 敎區報 1978. 6. 18 (1)

연중 제 11 주 일

기도서 P. 369 A해
제 1 독서 (출 애 19, 2-6절)
제 2 독서 (로 마 5, 6-11절)
복 음 (마 태 9,36-10,8절)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모두 갑시다.

서 석 기 신부

하느님 나라 메시지는 파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육신을 취하시고 성신으로 축성된 당신 아들을 파견하셨읍니다(전례헌장 5). 예수께서는 자원으로 미천한 인성을 취하사 이 세상에 파견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읍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시오(마태오 28장 18-20절).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오.」(마르코 10장 7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믿고 하느님 나라 선포의 중대한 사명과 목적을 깨달아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허다히 내가 무엇을 알아야지, 또는 직장에 바빠서, 혹은 애기 키우고 살림에 바빠서 하는 핑계를 내세워 파견된 자로서 사명과 목적을 잃고 사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하기야 세상 삶이란 고달프고 바쁜 생활임에는 틀림없읍니다.

인간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 있다고들 합니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영적생활도 약간의 희생이 따르는 선을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는 악을 택할 것인가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평신도는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들과 함께 각자의 능력대로 책임감을 지니고 협력해야 합니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7)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 선포를 위해 병을 고치고 악령을 제어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며 파견하셨듯이, 미사때마다 복음과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받고 중대한 사명을 띤 파견을 받았읍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말에 미사가 끝났으니 어서 집으로 가라 하는구나 하고 집으로 줄행랑놓을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다. 「가서」라는 말의 뜻을 잘 알아 들으셔야 하겠읍니다.

이 말은, 천상 사랑의 잔치에서 복음과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는 파견의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파견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고, 우리는 또 이 미사의 천상 잔치에서 복음과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받고 만민에게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의 계명을 그들 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모두 갑시다. 주님의 빛을 들고 어두움의 세상으로.

(덕진 천주교회 주임신부)

조작과 거짓말

조작(造作)이란 말이 있다. 어거지로 꾸며댄다는 뜻이겠다. 우리 주위에는, 실제는 없었던 일을 있었던것처럼 꾸며대어 남을 괴롭히는, 조작이 심심치 않게 춤을 추고 있다. 결국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꾸며대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꾸며대기 위해서 영터리 증인이 등장하게 된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몰려와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모릅니다"고 격정하며, 빌라도의 허락을 얻어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웠다. 그러나 허사였다. 이에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만나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집어 주며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 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하고 말하였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대로 하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다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마태오 27장, 62-28장 15절)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매수되어 거짓말을 했다. 이처럼 영터리 증인들은 거짓말을 해야되고, 이 거짓말들은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낸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언젠가 들어나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장 내일도 생각지 않고 거짓말들을 서슴없이 해낸다.

요새 우리는 그러한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물가만 해도, 오르지 않는다면 오른다. 물가상승률을 10%선으로 유지한다고 통계숫자를 들먹이며 강변을 해도, 시내버스 요금은 25%가 올랐다. 5,000원권 사격주화 판매를 무기연기했다고 발표해도 그것을 안믿고 밀치닥거리다가 20여명이나 중경상을 당하는 촌극도 생겼다.

숲 정 이 산 책

시급한 성소개발

우리의 작은 그리스도를 위한 편지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많다. 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어느 국민학교 교사의 편지가 숲정이에 소개되자 따뜻한 손길이 잇달았다.

이리 성모의원…3만원　　정승현 신부…2만원
군산 설 도미니꼬(준)…1만원
전동본당 익명 교우들…3만6천원
전주교구 가톨릭 약사회…10만원

편집자는 박안드레아 선생의 글을 받고 이를 교구 인성회(仁成會)에 알렸다. 교구 인성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단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키로 뜻을 정했다. 교구 인성회 위원이며 대학병원의 내과과장 안득수(마리오)박사는 병원측과 연락하여 앰브랜스를 내어 작은 그리스도 김준수군을 입원시켰다. 대학병원내의 가톨릭 간호원 모임인 아가다회는 정성을 다해 작은 그리스도를 도웁고 있다.

다음은 정성을 보내준 분들의 편지다.

숲정이 담당자님께

우리의 작은 그리스도께 3만원을 치료비로 보냅니다. (숲정이 78. 6. 4)

순창국민학교 3학년 김준수군의 완쾌를 빌면서.

—이리 성모의원

숲정이 289호 P.2에 실린 글에 대한 대답으로 2만원 보냅니다.

—정승현 신부

김준수 어린이의 고통을 덜어주는데에 써주십시오. (1만원 송금) 이 어린이의 쾌유를 기원하겠읍니다.

—군산 설 도미니꼬(준)

6월4일자 숲정이 2면에 선생님의 작은 그리스도를 위한 호소문을 읽고 마음이 아프군요.

가난에 시달리며 앓는 자식을 등에 업고 허덕이는 노모의 모습이 눈에 환히 보이는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어버이라면 똑같은 심정이겠지요.

오늘 형제들의 모임에서 준수군의 딱한 사정과, 따뜻한 선생님의 사랑에 모두 마음이 통하여 3만6천원이라는 돈을 모았읍니다. 준비하였던 것도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우리 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적은 액수입니다만, 조금이라도 준수군의 치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언제나 주님께 영광이 있고, 하느님의 사랑이 선생님과 준수군에게도 있으시기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성명은 밝히지 않겠으며 송금절차상 신부님의 명의로 우송하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동본당 익명 교우들

우리의 그리스도
나환자 형제들

「나환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신앙의 힘 뿐」

지난 5월29일 함열본당내 상지원공소의 음성나환자 정착촌에는, 서울 당산동본당 교우들의 정성으로 30만원상당의 성모상이 모셔졌읍니다. (가톨릭시보 6월 11일자, 3면참조)

소외당한 작은 형제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신앙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달래줄 손길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수녀를 모시고 싶어도 집이 없읍니다.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수녀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집이 없읍니다. 여기에 그들의 어려움이 있읍니다.

요즈음 갑작스러운 경제파동으로 물가고가 말로 다할 수가 없읍니다. 짜증이 늘고 주름살이 겹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때 일수록 더욱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합시다. 특별히 고통중에 있는 형제들을 더욱 격려하고 도웁시다.

상지원 공소는 함열본당에서 4㎞쯤 떨어져 있읍니다. 음성나환자들의 정착촌으로, 교우들은 많으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아픔으로 찌그러진 그들의 마음을 신앙으로 달랠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합시다

다음은 상지원 공소 오덕영씨의 편지입니다. 뜻이 있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주의 평화

상지원 농원 천주교 신자들을 대표하여 상지공소 주택 건립에 협조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송동본당 성프란치스꼬 3회 청년회, 상지원 방문시 12,000원. 모(某, 익명?)분께서 10,000원.

숲정이 본당 교우들 5,000원, 감사합니다.

지금 공소는 오래되어 벽에 금이가고 지붕은 샙니다. 그리하여 보수 수리할겸 교회 주택을 마련하여 수녀님을 모실려고 하오니, 여러 신자님들의 적극적인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들은 치유, 완치된 음성 나환자촌 교우들입니다. 아주 적은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분은 없는지요.

[510—80] 함열면 흑산리 209, 상지원 천주교회
오 덕 영(요셉)

□설계·감리 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희소식!!!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언〉)
☆전주 가톨릭센타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읍니다.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32 이리 8629
한 동 암 (모이세)

목욕탕의 우리 여선생님

김 병 엽 신부

국민학교 1학년때 누나를 따라 목욕탕에 갔다. 목욕의 기쁨보다도 사탕을 얻을 수 있는 즐거움 때문에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런데 목욕탕을 들어서니 일본인 담임선생님이 계시지 않은가. 가장 정중한 자세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게 웬말인가? 외면을 하신다. 다음날 가르쳐주시는 내용인즉, 변소와 목욕탕에서는 인사를 하면 실례라는 것이다.

한번은 춘추가 많으신 회장님 한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노기띤 말로 "요새 젊은애들은 통 예의도 모르고, 인사도 할 줄 모른다"고 한탄하셨다. "뭔데요, 회장님." "아! 글쎄 인사를 한답시고 십리나 되는 먼데서 목아지만 쑥 빼는게, 그게 인사요? 그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내려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위에서 인사를 하는 애들, 성당은 주 대전인데 무릎을 꿇고 앉는게 아니라 발을 딱 개고 앉는가 하면, 타관에 있다가 와서도 인사하는 법이 없고 해서 제가 먼저 아는체 했읍니다. 신부님, 그런 법도 있읍니까?

"회장님, 그런 법도 있다니요?"

"그게 아니지요. 이 바쁜 때에 그리고 우리 동네는 거의가 신자인데, 만나는 어른마다 자전거에서 내려 인사를 할 것 같으면 장날 원평까지 두시간도 아마 더 걸릴거예요 그리고 성당에서 발개고 앉는 것도 요새 젊은애들은 의자에 앉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무릎꿇고 앉는 걸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의를 갖추도록 만들어야 할텐데, 그게 문제죠. 성당에 의자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런 일이 없고, 잘 할게 아니겠어요? 사도 바오로께서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중에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인사라는 것도 예의의 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이 예의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존경심과 사랑, 인정이 문제인데 우리 어른들도 반성해 보아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나이가 많다는 자체로 요새 젊은이는 무조건 존경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인격적으로 존경할만하면 인사도 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개도 안 숙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이가 많다는 자체가 존경의 대상은 못되는 거지요. 만일 그렇다면 친년묵은 바위나 큰 나무에게도 매일 절을 하고 다녀야 하니까요. 요는 후배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느냐가 문제이겠지요. 안 그래요 회장님? 요새 젊은이들이 청바지에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머리며…… 하지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 배우려고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지 아세요? 참 순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는 우리 기성 세대들이 이해를 못하고 사회를 흐려 놓았으며, 우리가 존경받지 못할 일을 하였기 때문에 반항의 표현으로 보일 따름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 선생님께서 왜 인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다.

(수류본당 주임 신부)

建設部
시멘트 제품 제조 免許業体
신 흥 공 업 사
파티마 성당 입구
③ 6016, 2519
李敎成, 김화자(글라라)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타·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진안, 장계, 대리점)
진안전화 577번
장계전화 주간 9번, 야간 40번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읍니다.

결 (축) 혼

이 길 자 씨 3남 신상길(다니엘)군
임 영 호 씨 장녀 임영애(안젤라)양
일시 : 78년 6월 25일 오전 11시30분
장소 : 전동 천주교회
주례 : 김환철 신부님

★ 양심을 찾자 ★
현 대 칼 라 특 약 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 앙 사 진 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각종카텐·응접셋트·의자·철재책상·목재비품·기타일체(판매 및 수선)
대 건 공 업 사
전주시 서노송동 605의 43
(가톨릭센타 앞) 전화 ③7166
장 기 수(다두)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 조국을 위한 월요기도회 (19일〈월〉 오후 8시, 범신부님→주교님 대행, 장소 : 가톨릭센타
1. 이리 창인동 성당 신축 기공식 : (18일〈일〉 오전 11시)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업자 : 삼양건설)
2. 연합청년회 순회미사 : (24일〈토〉 오후 8시) 장소 : 월명동 성당
3. 3지구 신부회합 : (20일〈화〉 오전 10시) 이리 창인동성당 (임시 사제관, 전화 6393)
4. 1지구 울뜨레야 : (6월 25일 〈일〉 정읍성당, 오후 2시) 장소 : 정읍성당 모두 모여 뛰어 봅시다.
5. 전교사 연수회 (26〈월〉 오후 4시—28〈수〉 오후 3시) 장소 : 가톨릭센타 회비 : 1인당 3,000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용 록
보좌 신부 정 승 헌
보좌 신부 범 엽 배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성모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양로원)
2. 사도회 월례회 : 19일 8시30분(강당)
(구역장, 반장, 십신단체장 꼭 참석 바람)
3. 사무실에서 빌려간 도서 반납하세요
4. 미사 참례때 의복을 단정히 합시다
5. 미납된 교무금 납부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31,886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김 성 록

1. 성우회 월례회의 : 금일 공식미사 후
2. 신용조합 월례회의 : 금일 저녁미사 후
3. 레지오 마리에 P, R단장 모임 : 금일 공식미사 후
4. 사도회 월례회의 : 다음주 저녁미사 후
5. 교무금 납부의 날 : 매월 마지막 주일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정성드려 교무금 밀리지 않도록 합시다
7. 종합 우승 : 제4지구 중·고등학생 체육대회에서 본당 학생회가 우승하였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3,88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사도 회장 유 제 상

1. 예비자교리 개강 : 매주〈수〉 오후 7시30분, 일요일 공식미사 후
2. 희사 : 제병—장윤옥(데레사) 할머니
3. 6월 25일 교황주일 입니다(많은 기구와 특별헌금을…)
4. 본당 교우는 새로 나오신 교우분과의 인사를 합시다
5. 가정의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6. 사도회 임원회의 : 공식미사 후(반장, 구역장 빠짐없이…)
7. 젊은이들의 신앙강좌 토요일 6시 : 강사—김진소 신부님(젊은이 많은 참석 바람)
8. 성서 동지회 회원을 찾읍니다
23일 오후 7시 30분 (1층 회의실)

□ 지난주 봉헌금 : 74,46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1. 파티마 성모상 가정방문 : 22일〈목〉—이명옥, 23일〈금〉—김순이, 24일〈토〉—장옥근, 25일〈일〉—박금례 27일〈화〉—이정자
2. 반회장 회합 : 26일〈월〉 오후 8시
빠짐없이 시간을 지킵시다
3. 봉헌금 : 정성을 다해 미수가 없도록
4. 1일 교장 : 지난주일—김종술 오늘(18일)—김현경 다음주일(25일)—박인식
주일학교 매주일 오후 3시, 미사 4시

□ 지난주 봉헌금 : 109,74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부녀주일 : 10시미사 후
2. 반상회 : 6월 20일—9반, 21일—10반, 22일—11반, 23일—12반
3. 10주년기념 신축헌금
미등록하신 분 : 1반—8반원중 미신입하신 분은 교회에 나오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42,79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첫 영성체 교리 : 화·수·목·금—오후 5시
2. 유아세례 : 6월 30일 어머니미사 전
3. 중·고학생 특전미사 : 토요일 저녁 7시30분
4. 어머니 성가대 : 성가연습 매주〈목〉 오후 2시30분
5. 아기 예수님과 약속한 예비신자를 보살펴 주십시요
6. 학생회 : 4지구 체육대회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03,31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성
보좌 신부 유 종 환
사도 회장 유 석 종

1. 꼬미씨움 : 오후 2시
2. 울뜨레아 : 저녁미사 후
3. 젊은이 성서연구 쎄미나(월—수)
(제3면 참조)
4. 제4지구 학생 체육대회 : 전동 3등
5. 예비자 교리 : 주일(학생, 일반)
수(젊은이)
금(직장인)
6. 성당 의자 신청자 명단(제 3면 참조)

□ 지난주 봉헌금 : 140,150원

(파티마)

전화 ②7249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1. 어린이 미사 : 매주일 오후 3시
2. 어머니 미사 : 23일〈금〉 오전 10시
3. 성가연습 : 매주〈토〉 오후 5시
4. 교무금 재신입서 사도회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5. 가정방문
21일—독배(진달래집), 삼천동(양지마을), 22일—금천, 이서 상림
6. 부녀회 : 매월 첫금요일, 어머니 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 34,010원

* 인쇄·전 주 보 광 출 판 사 * ☎ ③ 3 2 7 2